



AHN, CHANG HONG

Heart of the Artist

안창홍 | 화가의 심장

AHN, CHANG HONG

Heart of the Artist

안창홍 | 화가의 심장

ARARIO GALLERY

## ARARIO GALLERY

SHANGHAI  
CHEONAN

SEOUL | SAMCHEONG  
SEOUL | RYSE HOTEL

1F No.2879 Longteng Avenue Xuhui District Shanghai China  
43 Mannam-ro Dongnam-gu Cheonan-si Chungnam Korea  
84 Bukchon-ro 5-gil Jongno-gu Seoul Korea  
B1 RYSE HOTEL 130 Yanghwa-ro Mapo-gu Seoul Korea

[www.arariogallery.com](http://www.arariogallery.com)

AHN, CHANG HONG  
Heart of the Artist

안창홍 | 화가의 심장

2 May - 30 June, 2019  
Arario Gallery Seoul | Samcheong



# The Beginning and the End

AHN, CHANG HONG

Exhibition preparations are now approaching the wrap-up phase.

Upon reflection, I realize that I invested a great deal of time in experimenting with ways to effectively convey my world throughout the process of hosting nearly 40 exhibitions, small and large.

The same applies to this exhibition.

My body is always worn down,  
thanks to my wild curiosities and frivolities,  
and the unrelenting attraction to adventures,  
wanting to set foot on untrod paths.

At times, such fearless ventures

Come at a steep price.

This would also be the case with this exhibition.

My last solo exhibition also solely consisted of three-dimensional works.

I had a hard time

Struggling with unfamiliar materials,

But I guess I push on nonetheless

Because the harder the task, the greater the sense of accomplishment.

I just do it.

Anyway, once again,

I chose adventure, and

Ended up being cooped up in the studio

For nearly a year, walled off

From the world.

But it never felt as if I was set apart

From the world.

I always felt connected.

My interest lies in worldly matters,

And the roots of my art are firmly grounded in the world.

So, even when my body is set apart,

My tentacles are pointed toward

The deep, dark and damp places

Within the forest of buildings where only the strongest survive,

Preying on the weak.

Perhaps, I gain a better field of vision

As I look into this depth,

Standing a step apart, right here.

The world's pain is my pain,

And my wrath and angst

Are the wrath and angst of our contemporary world.

The sorrow and grief of the alienated

Become my own sorrow and grief,

My breaths are the respirations of contemporaneity,

And my time is the present-progressive temporality

Of the world.

As such, I sought to locate the theme

Of this solo exhibition in the

Lives of the artist, as it accompanies

The pains of our own time.

This is because I believe that artists are the ones

Who sustain the burden of life, fighting individually,

With an awareness of the present and their will to persevere.

Most artists climb the rocky mountains,

Sustained only by their self-esteem,

Weighed down by poverty and anxieties of the uncertain future.

Seeking for honor and compensation

Without any guarantee other than time and fortune!

A few are lucky enough to be favored by the gods of time and fortune

And earn the spotlight they so desire,

But most are not as fortunate.

This is how the world works. The only difference

Lies in the irony whereby we struggle with temptation,

Despite our belief that the higher pursuits of the mind and spirit

Should never condone or collude with monetary values -

This is an entanglement of conflict and resistance.

Soon my works would be transported to the exhibitio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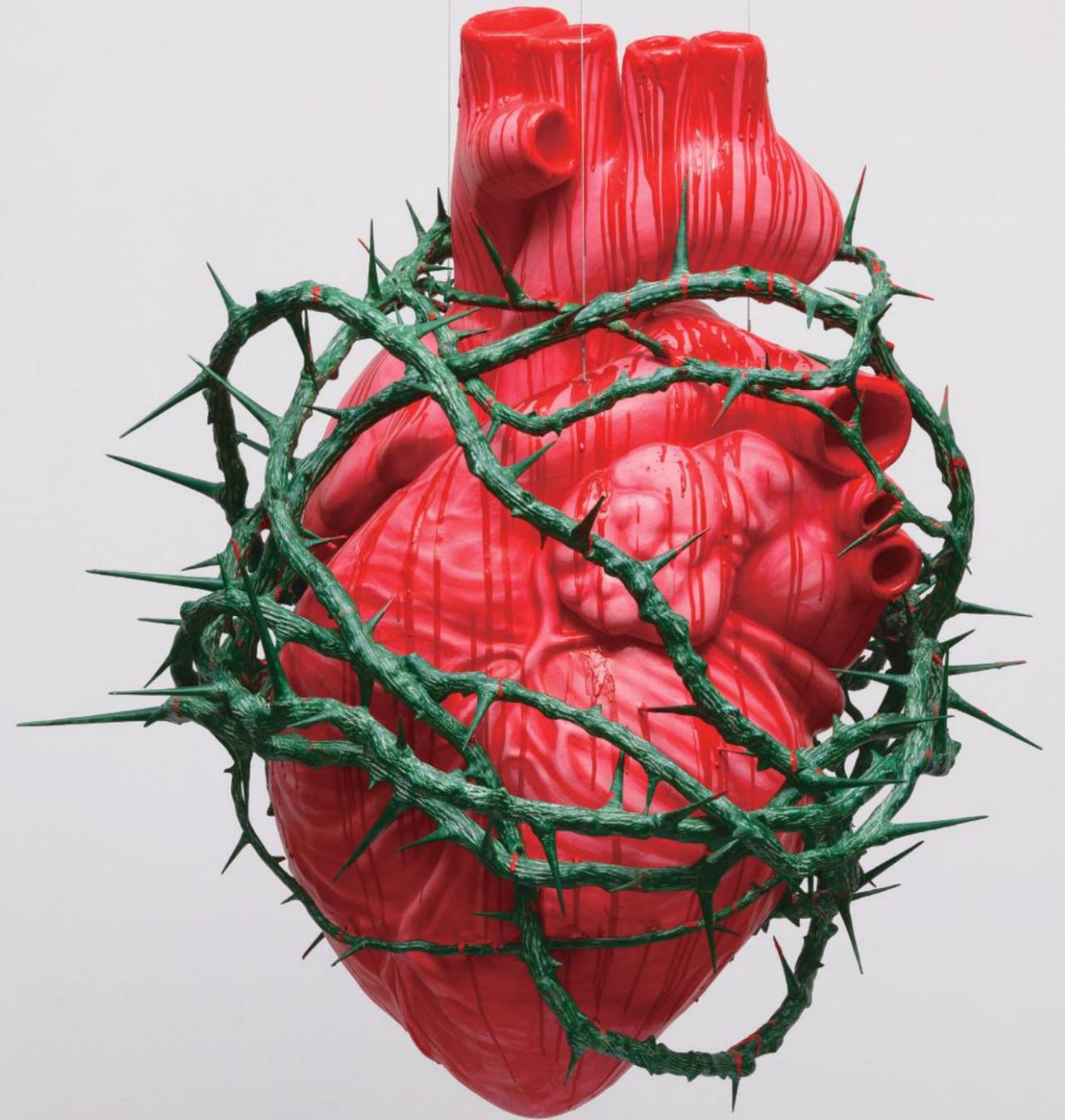
And I, will enter a period of full repose, if only for a few days,

Perhaps to nurse my tired and injured shoulders.

At the moment, I am fully immersing myself

In the last piece.

April 14, 2019, at the Studio







회가의 심장 1 *Heart of the Artist 1*, 2019, acrylic on FRP, 300 x 220 x 60(d) cm





회가의 심장 *Heart of the Artist*, 2018, Chinese ink, drawing ink, and acrylic on hardboard, 130 x 130 cm





회가의 손 1 *Hand of the Artist 1*, 2019, acrylic on FRP, 300 x 220 x 45(d) cm



회가의 손 1 *Hand of the Artist 1*, 2019, acrylic on FRP, 300 x 220 x 45(d) cm (detail)





회가의 손 3 *Hand of the Artist 3*, 2019, acrylic on FRP, 300 x 220 x 45(d) cm



화가의 손 3 Hand of the Artist 3, 2019, acrylic on FRP, 300 x 220 x 45(d) cm (detail)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시간 뿐이다.**

	<b>최태만 (미술평론가)</b>	
<span></span>		<span></span>
<b>화가의 심장</b>		
<span></span>		<span></span>

작업실로 들어서면서 크레인에 매달아 놓은 심장이 먼저 눈에 띄었다. 높이가 15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물체는 청록색의 가시에 둘러싸인 채 체인에 매달려있었다. 방금까지 붉은 선혈을 뿜어낸 것처럼 근육의 표면에 흘러내린 핏자국은 이 장기 덩어리가 여전히 박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심장을 결박하고 있는 예리한 가시는 색채에서든 형태에서든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비참과 숭고의 감정을 자극했다.

심장은 합성수지로 만든 반면 가시는 알루미늄을 깎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은 안창홍 자신의 심장이자 동료 화가들의 심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심장을 제작하였을까. 이 작품의 역사는 2002년에 그렸던 <화가의 심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녹색 가시에 의해 공격받고 있거나 혹은 구속당하고 있는 심장을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그렸다. 붉은색 심장이 실제 장기처럼 잘 발달한 근육과 볼륨을 지닌 데 비해 푸른색 심장은 거의 피를 다 쏟아낸 후의 장기처럼 창백하며 왜소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푸른색 심장은 그의 작품에 늘 등장하던 나비의 형상을 그려 넣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징하거나 검고 깊은 검은색 배경과 함께 우주공간을 유평하는 물체처럼 표현했다. 그런가 하면 붉은색 심장에서 가시는 침탈이나 억압을 의미한다기보다 탈산소화된 피를 심장으로 운반하는 정맥처럼 보이기도 한다.

안창홍의 작품 '화가의 심장'은 심장을 합성수지로 만든 반면 가시는 알루미늄을 깎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은 안창홍 자신의 심장이자 동료 화가들의 심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심장을 찌르는 이 가시는 본질적으로 고통을 암시한다. 안창홍은 2018년 9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아픔을 동반한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글 속에 그가 왜 고통받는 심장에 주목했는지를 밝히는 단서가 있다. 그는 말한다. 지극하고 고귀한 것은 절실함과 고통을 자양분으로 잉태된다고. 삶은 붉은빛 열정과 선혈 상처의 기록임. 그런 점에서 이 심장은 화가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전적 고백이자 예술가가 겪고 있는 고통에의 감정이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창홍의 작품 '화가의 심장'은 심장을 합성수지로 만든 반면 가시는 알루미늄을 깎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은 안창홍 자신의 심장이자 동료 화가들의 심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가시는 <고통받는 새>나 <푸른빛 먼류관>과 같은 회화에서, 부조로 제작한 <고통의 얼굴-내 피로 너희를 회개케 하리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1980년대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던 소재였다. 따라서 가시는 오래전부터 안창홍 자신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던 상처의 표상이자 벗어나야 하는 굴레였다. 그것이 이번에는 거대한 입체를 통해 부각하고 있으나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아니라 관조와 성찰의 길로 이끄는 매개체로 제시된다. 이 가시는 고통을 수반함과 동시에 심장의 박동을 채근하는 역할을 한다. 작가의 의식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뇌와 함께 심장도 뛰어야 한다. 심장을 찌르는 것은 가시가 아니라 심장의 활동을 멈추게 만드는 게으름이거나 또는 심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마구 박동하도록 유혹하는 욕망이다. 따라서 가시는 작가 자신이 내태의 심연으로 추락하거나 허망한 욕망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씩없이 활동하게 만드는 채찍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즐거움이다. 녁쿨의 줄기에 뽀족한 알루미늄 가시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찢리면서 느꼈을 그 짜릿한 쾌락은 그를 살아있게 만든다. 고통 속에서 그는 생명의 희열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아픔을 동반한다’고 말했던 것은 아닐까.

안창홍의 작품 '화가의 심장'은 심장을 합성수지로 만든 반면 가시는 알루미늄을 깎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은 안창홍 자신의 심장이자 동료 화가들의 심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집트의 유명한 <죽은 자의 글(Book of the Dead)>에 따르면 심장은 깃털보다 가벼워야 한다. 그래야 오시리스의 심판정에서 영원한 내세의 삶을 약속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도 심장을 생명과 동일시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있는 피를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펌프이자 생명의 원천인 인간의 심장은 평균 250~300g 정도이며, 심장에 피가 가득 고였을 경우 그 무게는 약 3kg이라고 한다. 마음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난 화학작용의 결과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심장과 마음을 동일시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선악을 심장의 무게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심장에서 피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곧 모든 활동을 멈추고 급속하게 부패할 것이다.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은 죽음과도 맞닿아 있다. 그것을 안창홍이 거대한 부조로 제작한 <화가의 심장>을 통해 확인하기란 어렵지 않다. 버려진 물감통, 나뭇구는 조화(造化) 굳어버린 물감 찌꺼기 등 온갖 폐기된 사물들 속에 마치 쓰레기처럼 내던져진 심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화가의 손>부터 주목해야 한다.

안창홍의 작품 '화가의 손'은 심장을 합성수지로 만든 반면 가시는 알루미늄을 깎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은 안창홍 자신의 심장이자 동료 화가들의 심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b>최태만 (미술평론가)</b>	
<span></span>		<span></span>
<b>화가의 손</b>		
<span></span>		<span></span>

안창홍의 작업실을 들를 때마다 눈에 띄는 다양한 잡동사니, 예컨대 해부학을 위한 인간의 뼈 모형으로부터 인형이나 골동품, 인조식물이나 각종 작업도구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커다란 상자 속에 수북하게 담겨있는 빈 물감통과 마치 바짝 마른 피막처럼 건조과정에서 뒤틀어진形形色색의 물감 찌꺼기들을 따로 모아놓은 상자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 버려진 것들로부터 피어난 꽃이 바로 <화가의 손>이다. 아마 그는 이 쓰레기 상자 속에 버려진 사물들을 볼 때마다 버려진 것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작품으로 되살아났다. 사실 오브제를 자르고 붙이는 아상블라주 작업은 회화만큼이나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안창홍의 작품 '화가의 손'은 심장을 합성수지로 만든 반면 가시는 알루미늄을 깎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은 안창홍 자신의 심장이자 동료 화가들의 심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신이 쓰다 버린 쓰레기에서 자신을 발견하다니. 어느 날 그는 쓰레기통에 백골의 상태로 폐기된 화가의 손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그는 물감통과 작품을 제작하다 버린 조화의 꽃잎, 끝이 부러져 미련 없이 통 속으로 집어 던진 나이프와 닳아 사용할 수 없는 몽당뿔, 팔레트에서 긁어낸 물감 찌꺼기 등이 뒤엉켜 있는 상자야말로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았다. 그 즉시 그는 인체연구를 위해 구해두었던 해부학 뼈 모형 중에서 팔을 떼어내 손가락 마디마다 자른 후 붓을 전 형태로 재조립하고 그 손아귀에 버린 몽당뿔을 쥐어주었다. 화가의 손은 이렇게 태어났다. 처음에 그는 실제 쓰레기 상자에 담겨있는 사물들을 그 상태대로 투명 에폭시로 응고시켰다. 그는 이 오브제 작품을 작업실 벽에 걸어놓고 몇 년을 바라보며 그것을 큰 작품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그 때가 왔다. 그는 이 작품을 마케트 삼아 높이가 3m에 폭은 2.2m에 이르는 거대한 부조를 합성수지로 제작했다. 주문했던 부조가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당장 낭패와 마주쳐야만 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작업실은 물론 입체작업을 위해 개축한 작업실의 어떤 문으로도 이 거대한 부조를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작업실의 문을 뜯어내고 부조를 집어넣어야만 했다. 무게도 각각 300kg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침 인사차 들른 후배 조각가를 포함하여 여섯 명의 장정이 부조를 들어 작업실로 넣었다는 것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남을 것이다. 작품의 반출을 위해 개폐에 편리한 새로운 문을 설치할 때까지 비닐로 임시가림막을 치고 작업했지만 워낙 큰 작품이기 때문에 그는 추운 겨울을 거대한 네 개의 부조를 완성하는데 집중해야만 했다. 게다가 거대한 크기를 지탱하기 위해 철골구조로 지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게만도 만만치 않아 따로 크레인을 주문했다.

안창홍의 작품 '화가의 손'은 심장을 합성수지로 만든 반면 가시는 알루미늄을 깎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은 안창홍 자신의 심장이자 동료 화가들의 심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부조로 제작한 <화가의 손>은 삼부작이며 각각 화가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현재를 암시한다. 서구의 삼면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 작품은 원래 작품이 가지고 있던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것과 유사금박(imitation gold foil)으로 화면의 전면을 뒤덮은 것, 그리고 재를 미디움과 섞어서 화면에 골고루 바른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원작처럼 각 사물들이 지닌 고유한 색채를 재현하기 위해 평면에 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요철이 심한 오브제는 물론 물감 찌꺼기의 질감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집중이 필요했다. 시간과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금박을 입히는 작업은 기술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의 시간이 필요했다. 애초에 그는 금박기술자에게 의뢰할 계획으로 계약을 하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새로운 작업으로 향한 호기심과 열망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 스스로 금박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생중계하듯 SNS를 통해 나에게 알려왔다. 덕분에 작업의 진행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과정을 관람하듯 지켜보며 문득 안창홍의 과도한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원작을 부조로 확대하는 것이야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겠지만 나머지 공정은 순전히 그의 손에 의해 완성된다. 수없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거대한 화면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 지독한 노동 못지않게 그의 직관과 감각이 없이는 이토록 화려하면서 비참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안창홍의 작품 '화가의 손'은 심장을 합성수지로 만든 반면 가시는 알루미늄을 깎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게만도 만만치 않은 이 작품은 안창홍 자신의 심장이자 동료 화가들의 심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먼저 버려진 사물들이 원래 가졌던 색채대로 재현한 작품을 보자. 영롱한 원색은 이 잡동사니들의 군락을 슬픔이나 분노, 고통과 절망, 죽음조차 사라진 낙원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주검 위에 칠해진 색채란 점에서 비참하며 허망하다. 그 위에 내던져진 앙상한 채로 빼만 남은 화가의 손은 곧 소멸할 화려함의 형해(形骸)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지만 그 손은 붓을 꼭 쥐 체 뭔가 주장하고 있다. 죽음을 이긴 예술에 대한 선언일까, 아니면 입신양명과 세속의 영광이 가져올 절멸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언일까. 어쨌든 이 작품을 구성하고

**Time Alone Is Eternal in This World.**

**Choi Tae Man (Art Critic)**

**Heart of the Artist**

What first caught my eye on entering the studio was a heart hanging from a crane. This gigantic, 150m-high object was hanging on a chain, encased in blue-green thorns. The bloodstain, running down the surface of the muscle as if red blood had just gushed out, gave the impression that the organ was still alive, pounding away. Moreover, the sharp thorns binding the heart posed a stark contrast in color and form, invoking the sensation of horror but also the sublime.

This massively heavy piece - the heart is made of synthetic resin, but the thorns are crafted out of aluminum, chained together - depicts Ahn Chang Hong’s own heart as well as those of his fellow artists. Then why did he choose to entrap the heart in such pain, wrapped in thorns? His inspiration harkens back to *Heart of the Artist* from 2002, wherein he drew red and blue hearts that are either under attack or constrained by green thorns. Whereas the red heart features well-developed musculature and volume like an actual organ, the blue heart is notable for its pale hue and small size, as if it had been completely drained of blood. Furthermore, the blue heart, like his recurring motif of a butterfly, symbolizes the afterlife; set against a pitch-black background, it resembles an object floating in space. The thorns surrounding the red heart, meanwhile, look like veins that carry deoxygenated blood to the organ instead of signifying plunder or repression.

However, the thorns that pierce the heart fundamentally imply pain. Ahn posted a short musing on his Facebook profile on September 1<sup>st</sup> of 2018: “Most anything valuable in this world is accompanied by pain.” This post clues us into the motivation behind his focus on suffering hearts. He says that anything profound and noble arises from desperation, that life is a record of scarlet passion and bloody wounds. In this light, the heart can be understood as an autobiographical confession of his life as an artist, and his empathetic depiction of the pain one experiences in artistic creation.

The thorn was already a recurring motif in his works from the 1980s and thereon, as seen in his paintings such as *A bird under pain* or *Blue-colored Crown*, or his relief *A face of pain - you shall repent in my blood*. As such, the thorn is a sign of a deep-set wound Ahn’s heart harbors, a bondage to be discarded. Highlighted in the form of a gigantic three-dimensional piece, the thorns in his most recent work map the path to reflection and contemplation rather than heart-wrenching pain, catalyzing the heartbeat while inscribing pain. For the artist’s consciousness to stay awake, the heart must remain in full operation, along with the brain. That which pierces the heart is not the thorns, but the heart-stopping kind of idleness or desires that propel the heart to beat toward random directions. Therefore, the thorn is like a whip that forces the artist to forge on without descending into the abyss of idleness or futile desire. Then, this pain is a form of joy. The thrilling pain he must have felt in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sharp aluminum thorns to the vines, suffering countless pricks himself, is what keeps him alive. He feels the joy of life in this pain, which may be why he said “most anything that is valuable in this world is accompanied by pain.”

According to the well-known dictates of the Egyptian *Book of the Dead*, the heart must be lighter than a feather for one to obtain promise of eternal life at the court of Osiris. Ancient Egyptians equated the heart to life. The human heart, the source of life and a pump that circulates oxygen and nutrition through our bloodstreams, weighs about 250~300g on average, 3kg when replete with blood. The mind is the product of the chemical reactions in our brain rather than the heart, but we still see the heart as the seat of our minds. We may not be able to gauge morality by the weight of our hearts, but our bodies would immediately stop functioning should the heart cease to circulate our blood. As the symbol of life, the heart is also closely tied to notions of death, as shown in Ahn’s huge relief *Heart of the Artist*. In order to explore the heart, discarded among an array of abandoned objects like paint cans, artificial flowers, and congealed paint residue, we must first turn our attention to *Hand of the Artist*.

있는 모든 사물들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에서의 구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기존재를 외치고 있다. 한때 그의 작업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했던 사물들의 외침, 그것이야말로 화가로서 안창홍이 쓰레기를 거룩한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일 것이다. 죽음처럼 쓰레기도 불결하고 끔찍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소멸한다. 그것이 너무도 잔혹하기 때문에 인간은 내세를 상상한다. 사물의 죽음에는 내세의 복락도, 심판도, 지옥의 영벌도 없다. 용도폐기된 사물들이 최후로 가야 할 곳은 소각장이겠지만 마치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 화면으로 되돌아와 화면에 부착함으로써 태연하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 그는 죽은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된다. 그것은 예술가에게 부여된 특권이다.

젯빛으로 화면을 모두 채운 작품은 사물들을 통해 죽음을 돌아보게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금박을 입힌 작품이나 채색된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파리,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은 물론 달팽이와 같은 생명체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생명체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박제돼 있다. 바퀴벌레의 경우 뒤집어진 채 배를 드러내고 있다. 주검 그 자체이다. 안창홍은 오래전부터 화려함의 죽음을 부패를 상징하는 파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젯빛은 바야흐로 부패와 해체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순환과정을 암시한다. 한쪽에서는 황금빛의 찬란함이, 다른 쪽에서는 죽음의 어둡고 창백함이 서로를 반추한다. 영광과 절멸, 화려함과 비참함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화가는, 더 나아가 인간은 그 사이에서 마치 진자처럼 진동하는 삶을 살아간다. 예술가의 작업에 있어서 그 떨림의 진폭이 클수록 작품은 충격이거나 감동으로 다가온다.

**시간 앞에서**

이제 <화가의 손> 삼부작의 연장에 있는 <화가의 심장>을 보자. <화가의 손>과 동일한 버려진 사물들 속에 폐기된 듯 올려놓은 화가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을까. 그는 이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심장을 칠하는 과정에 대해 화롱점정의 점안식을 했다는 수사를 동원했다. 그러면서 생기를 부여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볼 때 화가의 심장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작가는 특정한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을 죽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조각가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자(he-who-keeps-alive)’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는 예술가야말로 죽음의 파괴를 거부하며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는 존재라는 신념을 이 작품을 통해 표현한 것은 아닐까. 24k 금박으로 입힌 <화가의 손>을 보면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백골상태의 뼈만 앙상한 손을 금박으로 장식하다니. 그러나 그것이 마이더스처럼 황금에의 환호와 열광을 표상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어쩌면 처참하지만 단호한 손을 통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손에 바치는 존경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작업실에서 나는 문득 그가 벽에 써놓은 짧은 문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시간 뿐이다.’ 그렇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시간의 속성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한 시간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다. 그는 작품은 삶의 본질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며 작품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그의 시선이 사회로 향하고 있었다면 화가의 손과 심장은 자기 자신과 동료 예술가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의 작품이 관조와 성찰을 지향한다고 말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는 고독한 은둔자가 아니다. 이번에 함께 전시할 <이름도 없는…> 연작은 4.3이나 5.18과 같은 비극적 사건으로 희생되었지만 일련번호로만 표시된 사람들에게 바치는 오마주이다. 여러 이유로 잊혀졌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드러난 진실을 증거하는 이 망각된 초상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임에 분명하다.

## Hand of the Artist

One of the greatest joys of visiting Ahn's studio, apart from that of appreciating the assortment of random objects including an anatomical model of the human skeleton, antiques, artificial plants, and various tools, is observing the pile of empty paint cans and colorful, dried up paint residue, all piled into huge boxes. *Hand of the Artist* bloomed out of these discarded objects. He must have felt compelled to breathe new life into them, relegated to the boxes in disorderly jumbles. And now, they are brought back to life. The assemblage process, cutting and piecing the objects together, makes up a significant portion of his work - at least as much as painting does. Imagine finding oneself in the things one had thrown away. One day, he was possessed by the vision of an artist's hand, abandoned in the waste bin in skeletal form. This was when he realized that these objects in the boxes - broken knives tossed into paint cans, unusable old brushes, petals from the artificial flowers left over from his other works, paint dregs scraped off the palette - were all none other than his own portraiture. Immediately, he detached the arm from the anatomical skeleton he had acquired to study the human body, cut up and reassembled the finger joints, and inserted a used-up brush in their grip. *Hand of the Artist* was thus born. At first, he encased the things in the waste bin in transparent epoxy. He hung this object on his studio wall, gazing upon it for years and planning to expand it into a large-scale piece. The right moment finally arrived; building on the original work, he produced a huge relief in synthetic resin, 3m in height and 2.2m in width. He encountered an unforeseen problem when the relief he ordered arrived at the studio, for the relief was unable to fit through any of the doors, even those of areas remodeled for his production process. In the end, he had to tear out the door to move the piece in. As the works weighed over 300kg each, six men, including a fellow sculptor who dropped by to say hello at the time, had to carry them in. Ahn installed a temporary vinyl screen until he could build in a new door to facilitate the pieces' entry and exit, but since they were so big, he had to solely focus on completing the four reliefs all throughout the cold winter season. Because the steel structure he built to support the size of the relief was also extremely heavy, he had to order a crane.

As a trilogy of reliefs, *Hand of the Artist* gestures to the success, despair, and present of an artist, respectively. Reminding the viewer of Western triptychs, the colorful assortment comprises a brightly colored piece in the spirit of the original work, another covered in imitation gold foil, and a third piece to which Ahn applied a mixture of ash and medium on the surface. As such, the works are more time- and labor-intensive than flat-plane painting, featuring the unique colors of each of the objects as shown in the original piece. He had to invest further effort to accurately represent the curvatures of the objects and the texture of the paint residue. His fight against time did not end there. Applying the gold foil was particularly demanding, both technically and temporally. His initial plan was to consign the foiling part to a technician, but his curiosity and passion took over, and he eventually undertook the task himself. He sent real-time updates through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roughout the process, keeping me apprised of the situation. Observing his toils, I discovered where his excessive confidence sprang from. Expanding an artwork into a bigger relief would require the touch of an expert, but the rest of the process is completely dependent upon his own handicraft. The intensity of the labor required, gradually filling in the giant plane while climbing and descending the ladder numerous times - his intuition and sensitivity is what allows for this kind of labor to shine, resulting in such a dazzling yet also profoundly distressing artwork.

Let us first look at the piece where discarded objects are reconfigured to present their original colors. He turns this jumbled assortment into a utopia, devoid of sorrow, wrath, pain, despair, or even death. However, the colors are also dismal and futile in that they are painted on expired bodies. The artist's hand, thrown on the objects and withered down to the bone, is reminiscent of a skeletal residue - that of a brilliance on the verge of annihilation. However, the hand never loosens its grip, asserting something... perhaps declaring art's victory over death, or a portending a doomed future that follows desires for prosperity and secular glory. Whatever it may be, the objects that constitute this piece seem to be preparing themselves for a resurrection

rather than eternal rest, declaring their existence in a dimension that differs from religious salvation. The cries of all the objects that had offered themselves whole for his work, these are what motivate Ahn to view waste as something divine. Waste can be filthy and horrendous, just like death. However, all life expires, eventually. Because this is such a terrifying prospect, humans dream of an afterlife. There exists no life after death, final judgment, or eternal punishment for objects. The eventual destination for discarded objects would be the incinerator, but with time reversed, they are given new life as if nothing happened, attached to the white space. At this point, Ahn becomes someone who endows new meaning to the dead. This is a privilege reserved for artists.

The piece completely painted in gray pushes the viewer to reflect on death through objects. This work features things that are absent in the gilded or colored piece - life forms such as flies, cockroaches, or even snails. Upon close observation, one finds that they are not alive, but taxidermied. The cockroach is flipped, exposing its belly; a carcass, if there ever was one. The fly has been a recurring motif in Ahn's work, symbolizing the death and corruption of dazzling exteriorities. Moreover, the gray color implies the cycle of life whereby one returns to Nature through the process of decay and decomposition. The brilliance of the golden hue, standing in contrast to the dark and pale colors of death, reflect on and resist each other. Glory and extinction, brilliance and destitution cannot be separated. Artists, or shall we say human beings, lead their lives like a pendulum, oscillat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nodes. The greater the amplitude, the stronger the shock or affective force of a given work of art.

## Facing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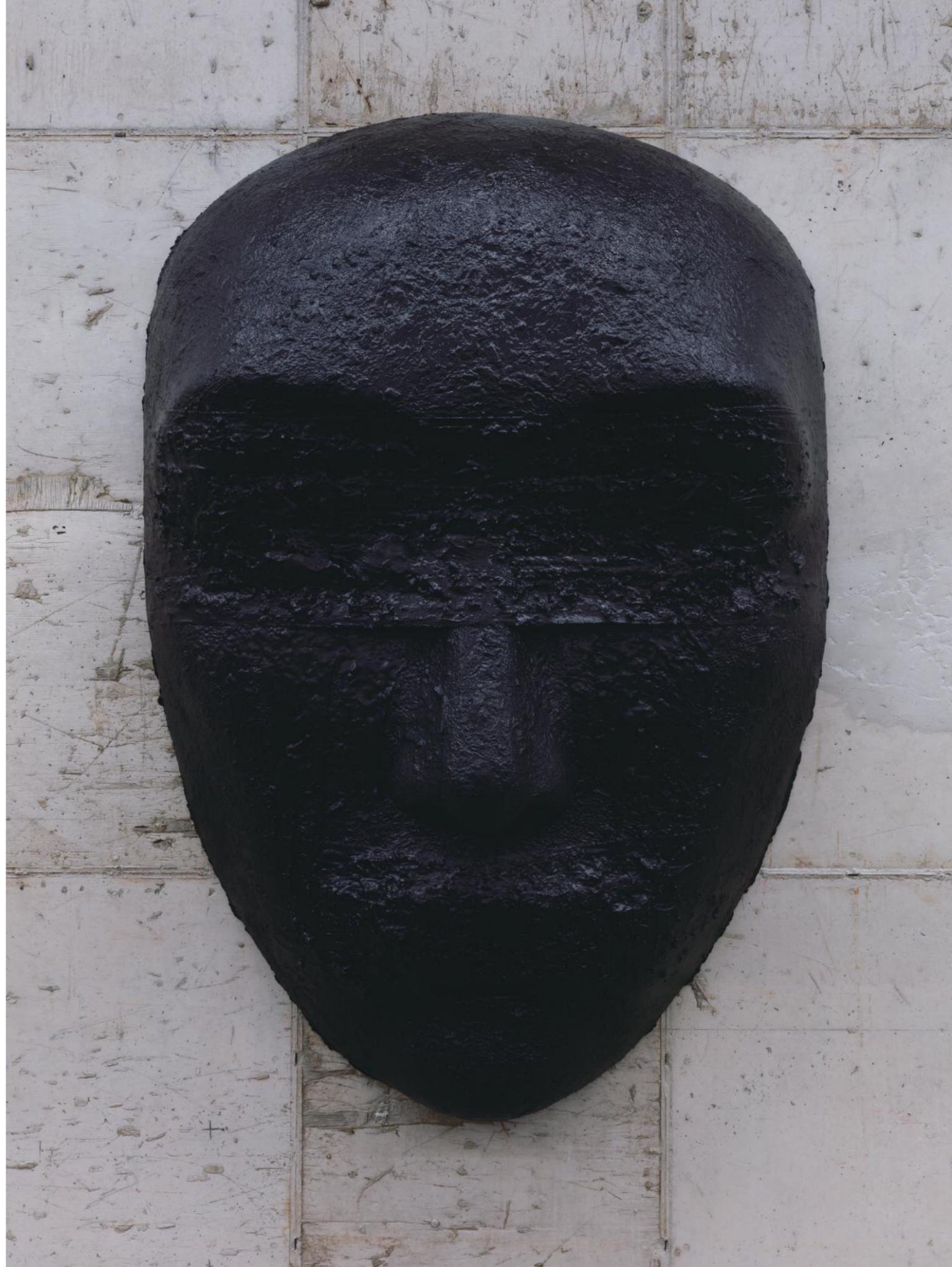
Now let us move on to *Heart of the Artist*, which builds on *Hand of the Artist* trilogy. Is the heart of the artist, placed atop discarded objects just as in *Hand of the Artist*, still beating away? He described the process of painting the heart in the last stages of production as adding the "final stroke of life." This metaphor suggests that the heart of the artist is not discarded, but transformed into a device that gives life to the abandoned. Ahn may even believe himself to be someone who breathes life into dead objects from a non-religious stance. Ancient Egyptians described artists as "he who keeps alive"; indeed, Ahn may have conveyed his belief that artists disavow the destruction of death, promising new life. Gilded in 24k gold, *Hand of the Artist* invites us to consider this possibility through the gold-plated skeletal hand. This object, however, is not indicating any desire for and celebration of gold itself, as one would imagine in connection to the myth of Midas. The appalling yet determined gesture of the hand may simply wear this particular form, signifying Ahn's reverence for the artist's hand and its production of value.

I discovered a short sentence written on his studio wall. It said: "time alone is eternal in this world." Indeed, time remains a mystery, despite all the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advancements that shed light on temporal properties. As long as we remain finite beings, time is not a fate to be overcome, but a destiny to be embraced. Ahn said that art reveals the essence of life through materiality, and that he wishes to tell stories of life through his work. While his previous works gesture to the social, *Hand of the Artist* and *Heart of the Artist* point to himself and his fellow artists, which is why I would say his art aspires to contemplation and reflection. He however is no solitary hermit. The *Sad Evaporation* series in this exhibition pays homage to the nameless victims of tragic events such as the Jeju Uprising or the Gwangju Uprising, who are remembered only by the numbers their remains were given. This forgotten portrait, evidencing the kinds of truths that were pushed into oblivion for various reasons but have suddenly come to surface, is part of a history we must remember.



마스크 연작 Mask series, 2018, mixed media, size variable















이름도 없는... 2018-3 *Sad Evaporation 2018-3*, 2018, oil on canvas, 38 x 38 cm



이름도 없는... 2018-4 *Sad Evaporation 2018-4*, 2018, oil on canvas, 38 x 38 cm



이름도 없는... 2018-5 Sad Evaporation 2018-5, 2018, oil on canvas, 38x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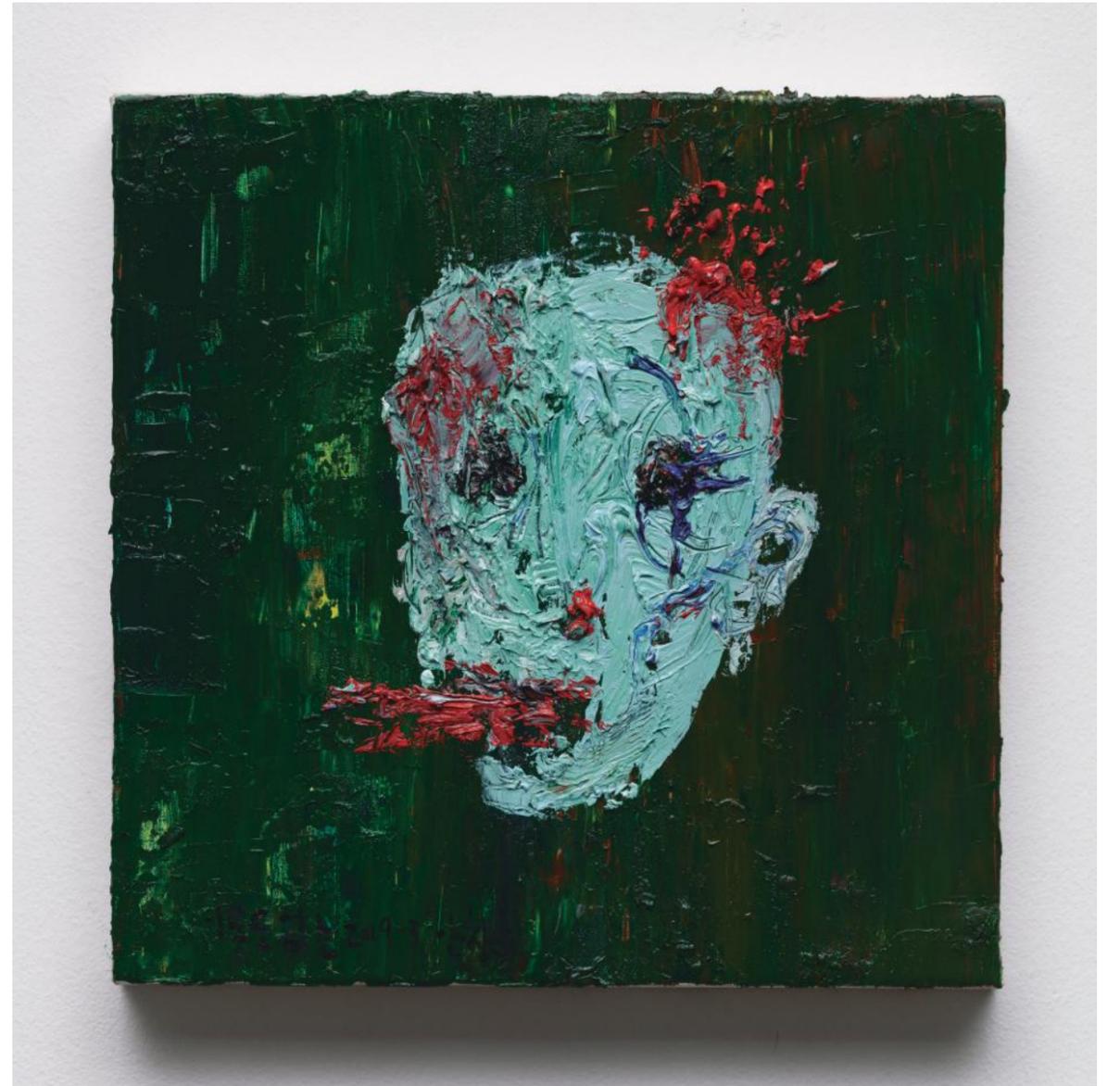


이름도 없는... 2018-6 Sad Evaporation 2018-6, 2018, oil on canvas, 38 x 38 cm











이름도 없는... 2019-5 *Sad Evaporation 2019-5*, 2019, oil on canvas, 38 x 38 cm



이름도 없는... 2019-6 *Sad Evaporation 2019-6*, 2019, oil on canvas, 38 x 38 cm



이름도 없는... 2019-7 *Sad Evaporation 2019-7*, 2019, oil on canvas, 38 x 38 cm



이름도 없는... 2019-8 *Sad Evaporation 2019-8*, 2019, oil on canvas, 38 x 38 cm









## 안창홍 (b.1953)

1953	대한민국 경남 밀양 출생	2017	코리아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p>청년의 초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한국</p> <p>키워드 한국미술 2017-광장예술: 햇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p> <p>트라이앵글,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한국</p> <p>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동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p>
	<b>주요 개인전</b>	2016	낮선 얼굴: 강경구, 김나리, 안창홍, 갤러리 룩스, 서울, 한국 <p>사회 속 미술 -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p> <p>아틀리에STORY,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p>
2019	화가의 심장,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2015	시대정신 전태일, 아라아트센터, 서울, 한국 <p>2015 서신갤러리 新소장품전: 여자 사람, 서신갤러리, 전주, 한국</p> <p>1980년대와 한국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한국</p>
2017	눈먼 자들, 조현화랑, 부산, 한국	2014	저런 생각, 이런 표현, 김스 아트필드 미술관, 부산, 한국
2015	나르지 못하는 새, 안창홍 1972-2015,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한국	2013	'텔레-비'전,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p>사람아! 사람아! - 신학철, 안창홍 2인 전, 경기도립미술관, 안산, 한국</p> <p>장면의 재구성 #1 - Scene vs Scene,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p>
2014	At the garden, 페이지 갤러리, 서울, 한국 <p>'남과 북' 기억공작소,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p>	2012	Mapping the Gray, 갤러리 잔다리, 서울, 한국 <p>High Times, Hard Times - 객관화하기, 인터알리아, 서울, 한국</p>
2013	제25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 기념 안창홍 작품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한국 <p>발견 / Micro:scope,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p>	2011	시대의 거울, 초상展, 북촌미술관, 서울, 한국 <p>재개관전,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한국</p> <p>코리아안 랩스디 -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한국</p>
2012	아리랑, 페이지 갤러리, 서울, 한국 <p>쿠리에서 고비까지, 갤러리 룩스, 서울, 한국</p>	2010	예술가와 가족,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2011	인도 여행스케치, 공간화랑, 부산, 한국 <p>불편한 진실, 가나화랑, 서울, 한국</p>	2009	인간의 거울- The Head, 김스 아트 필드 미술관, 부산, 한국 <p>안창홍 • 김정욱 전,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한국</p> <p>현대미술로 해석된 리얼리즘,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p> <p>괴물시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p>
2010	제1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초대전, 대구문화예술센터 달구벌 홀, 대구, 한국	2008	봄날은 간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2009	시대의 초상,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p>흑백거울,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p>	2007	도큐멘타 부산3 -일상의 역사,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p>한국 현대미술 100인, 코리아아트 갤러리, 부산, 한국</p> <p>그림 보는 법,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p> <p>한국미술의 리얼리즘 - 민중의 고통, 반다지아, 후쿠오카,미야코쥬노 시립미술관, 오타니기념미술관, 후추 미술관, 일본</p>
2006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 <p>얼굴,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p>	2005	한국 현대미술 APEC 기념 특별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2004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	2004	부산 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p>그리스 기행, 사비나 미술관, 서울, 한국</p>
2003	안창홍의 인도 여행기, 공간화랑, 부산, 한국 <p>제1회 부일 미술대상 수상 기념전, 코리아 아트 갤러리, 부산, 한국</p>	2003	제1회 북경 비엔날레, 북경, 중국 <p>그리는 회화-혼성회화의 제시, 영은미술관, 경기도, 한국</p> <p>예술가의 술 이야기,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p> <p>사이코 드라마,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p>
2002	안창홍 작품전,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2002	한국발(發), 서울옥션, 서울, 한국 <p>광주 비엔날레 프로젝트 3 - 집행유예, 8.15시민공원, 광주, 한국</p> <p>한 • 중 2002새로운 표정,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p>
2001	모래바람-고비사막 가는 길, 이목화랑, 서울, 한국	2001	한국미술 2001: 현대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p>가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p> <p>19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p>
2000	안창홍 전, 남산화랑, 부산, 한국 <p>안창홍 작품전, 갤러리 그림시화랑, 수원, 한국</p>	2000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인간과 성,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1999	안창홍 작품전, 노화랑; 사비나 화랑, 서울, 한국	1998	창-안과 밖,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p>부산미술재조명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p>
1998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	1997	현대미술 '97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p>미술관에 넘치는 유머,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p> <p>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p>
1997	안창홍 작품전, 전경숙 갤러리 / N • C 갤러리, 부산, 한국		
1995	안창홍 작품전, 그림시화랑, 수원, 한국 <p>안창홍 작품전, 나무화랑, 서울, 한국</p> <p>안창홍 작품전, 이목화랑, 서울, 한국</p>		
1994	안창홍 작품전, 갤러리아아트홀, 서울, 한국 <p>안창홍 작품전, 갤러리 누보, 부산, 한국</p>		
1993	안창홍 작품전,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1991	안창홍 작품전, 샘터화랑, 서울, 한국 <p>안창홍 작품전, 맥화랑, 부산, 한국</p>		
1989	안창홍 작품전, 온다리 미술관 초대, 전주, 한국		
1987	새와 사람이야기, 갤러리 누보, 부산 , 한국		
1986	안창홍 작품전 한강미술관, 서울, 한국 <p>안창홍 작품전 사인화랑, 부산, 한국</p>		
1984	안창홍 작품전 고려미술관, 부산, 한국		
1981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 <p>안창홍 작품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한국</p>		

### 주요 단체전

2019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2018	흐린 날의 노래: 강경구, 김을, 안창홍, 아트비트갤러리, 서울, 한국 <p>균열 II<span> </span>: 세상을 향한 눈, 영원을 향한 시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한국</p> <p>틈 사이에 서서, 경기문화재단 로비갤러리, 수원, 한국</p> <p>시대유감 時代遺憾,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p> <p>두 번째 풍경,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p>

1996	밤의 풍경, 갤러리 사비나 초대, 서울, 한국 해방 50년 역사,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1995	회상 10년의 눈, 화랑미술제 특별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민중미술15년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자존의 길,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1993	한국현대미술의 꽃, 그림마당 민 초대, 서울, 한국
1992	90년대 우리미술의 단면, 우리미술문화연구소, 서울, 한국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무의식과 욕망,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갈등과 대결의 시대, 환원미술관 개관기념 전, 환원미술관, 서울, 한국
1987	현존시각, 사인화랑, 부산, 한국
1986	현실과 발언전, 그림마당 민, 서울, 한국
1985	서울미술관 개관 4주년 기념전,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1984	제2회 시대정신, 부산, 마산, 서울, 한국 현실과 발언 동인전, 아람미술관, 서울, 한국 83 문제작가전,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1983	현실과 발언 동인전, 관훈미술관, 서울, 한국 제1회 시대정신, 제3미술관, 서울, 한국
1982	인간 11인, 관훈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현대미술 80년대 조망, 미술회관, 서울, 한국 상황과 인식, 현대화랑, 부산, 한국
1981	부산청년비엔날레, 공간화랑, 부산, 한국
1980	현대미술 21인의 초대전, 국제화랑, 부산, 한국
1979	한국미술 청년작가회전, 서울, 춘천, 대구, 제주, 한국
1978	국제화랑개관기념전, 국제화랑, 부산, 한국
1977	제1-2회 기류전, 부산, 한국
1976	안창홍 · 정복수 2인전, 현대화랑, 부산, 한국

#### 수상

2013	제25회 이중섭 미술상, 서울, 한국
2009	제1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 대구, 한국
2001	제1회 부일 미술대상 수상, 부산일보사, 부산, 한국
2000	제10회 봉생문화상 전시부분 수상, 봉생 문화재단, 부산, 한국
1989	카뉴국제회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카뉴, 프랑스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사비나미술관  
구삼유지엄  
금호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 AHN, Chang Hong (b.1953)

1953	Born in Milyang, South Korea
------	------------------------------

1953	Born in Milyang, South Korea
------	------------------------------

#### SOLO EXHIBITIONS

2019	<i>Heart of the Artist</i> , Arario Gallery, Seoul, Korea
2017	<i>Blindness</i> , Johyun Gallery, Busan, Korea
2015	<i>A Broken Wing - Ahn, Chang Hong 1972-2015</i> , Arario Gallery, Cheonan, Korea
2014	<i>At the Garden-Ahn, Chang Hong</i> , The Page Gallery, Seoul, Korea <i>A Spot of Recollections</i> ,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2013	<i>The 25th Ahn Chang-hong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Lee, Jung-seop Arts Prize</i> , Chosun Gallery, Seoul, Korea <i>Discovery / Micro:scope</i> , Loop Gallery, Seoul, Korea
2012	<i>Arirang</i> , The Page Gallery, Seoul, Korea <i>From Kuri to Gobi</i> , Lux Gallery, Seoul, Korea
2011	<i>India Trip</i> , Kongkan Gallery, Busan, Korea <i>An Inconvenient Truth</i> , Gana Art Center, Seoul, Korea
2010	<i>10th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Lee, In-Sung Arts Prize</i> , Daegu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Korea
2009	<i>Portrait of The Age</i> , Busan Museum of Modern Art, Busan, Korea <i>Black &amp; White Mirror</i> , Savin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6	<i>Ahn, Chang Hong</i> , Kongkan Gallery, Busan, Korea <i>Face</i> , Savin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4	Kongkan Gallery, Busan, Korea
2003	<i>A Record of Ahn Chang Hong's Travel to India</i> , Kongkan Gallery, Busan, Korea <i>The 1st Buil Art Award</i> , Korea Art Gallery, Busan, Korea
2002	<i>Ahn, Chang Hong's Work Exhibition</i> , Savin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1	<i>The Sand Storm - Path to the Gobi Desert</i> , Yeemock Gallery, Seoul, Korea
2000	<i>Ahn, Chang Hong</i> , Namsan Gallery, Busan, Korea <i>Ahn, Chang Hong</i> , Gallery Grimshi, Suwon, Korea
1999	<i>Ahn, Chang Hong</i> , Rho Gallery, Seoul; Savina Museum of Art, Seoul, Korea
1998	<i>Ahn, Chang Hong</i> , Kongkan Gallery, Busan, Korea
1997	<i>Ahn, Chang Hong</i> , Jeon Gyeong-suk Gallery / N·C Gallery, Busan, Korea
1995	<i>Ahn, Chang Hong</i> , The Picture and Poetry Gallery, Suwon, Korea <i>Ahn, Chang Hong</i> , Namu Gallery, Seoul, Korea <i>Ahn, Chang Hong</i> , Yeemock Gallery, Seoul, Korea
1994	<i>Ahn, Chang Hong</i> , Gallery Art Hall, Seoul, Korea <i>Ahn, Chang Hong</i> , Gallery Nouveau, Busan, Korea
1993	<i>Ahn, Chang Hong</i> ,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1991	<i>Ahn, Chang Hong</i> , Samtoh Gallery, Seoul, Korea <i>Ahn, Chang Hong</i> , Mac Gallery, Busan, Korea
1989	<i>Ahn, Chang Hong</i> , Ondara Museum of Art, Jeonju, Korea
1987	<i>The Story of Birds and Man</i> , Gallery Novo, Busan, Korea
1986	<i>Ahn, Chang Hong</i> , Hangang Gallery, Seoul, Korea <i>Ahn, Chang Hong</i> , Sain Gallery, Busan, Korea
1984	<i>Ahn, Chang Hong</i> , Korea Museum of Art, Busan, Korea
1981	<i>Ahn, Chang Hong</i> , Kongkan Gallery, Busan, Korea <i>Ahn, Chang Hong</i> , Young Artist Center, Seoul, Korea

#### GROUP EXHIBITIONS

2019	<i>One Shiny Day</i> ,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2018	<i>The Song on a Cloudy Day: Kyung koo KANG, Eul KIM, Chang-hong AHN</i> , Artbit Gallery, Seoul, Korea <i>CRACKS in the Concrete II from the MMCA Collection</i>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i>In the chasm between</i> ,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Lobby Gallery, Suwon, Korea <i>Regrettable Times</i> ,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i>The Veiled Landscape</i> ,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7 *KOREA TOMORROW 2017: Narrative Landscape*,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The Portrait of Youth*,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Seoul, Korea  
*Keyword Korean Arts 2017-Plaza Arts: From Torch to Candlelight*,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Triangle*, Gallery Artside, Seoul, Korea  
*Samramansang : from KIM Whanki to YANG Fudo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6 *An Unfamiliar Face: Kyung koo KANG, Nari KIM, Chang-hong AHN*, Gallery Lux, Seoul, Korea  
*Art in Society - Land of Happiness*,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Atelier STORY*,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15 *Zeitgeist Chun Tae-il*, Ara Art Center, Seoul, Korea

2015 *Seoshin Gallery's New Acquisitions: Women*, Seoshin Gallery, Jeonju, Korea  
*The 1980s and Korean Art*, Jeonbuk Museum of Art, Jeonbuk, Korea

2014 *That Thought, This Expression*, Kim's Art Field Art Museum, Busan, Korea

2013 *Tele-Be*, Gallery Hyundai, Seoul, Korea  
*Humans Humans: The Pictorial History of Ordinary People by Shin Hak Chul and Ahn Chang Hong*,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Restructure of Scene #1 - Scene vs Scene*,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2 *Mapping the Gray*, Zandari Gallery, Seoul, Korea  
*High Times, Hard Times -Objectify*, Interalia Art Company, Seoul, Korea

2011 *Mirror of the Age, a Portrait*, Bukchon Museum of Art, Seoul, Korea  
*Reopen at Hannam*, Gallery Skape, Seoul, Korea  
*Korean Rhapsody-A Montage of History and Memory*,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0 *Artists and Their Families*,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2009 *Mirror of Human- THE HEAD*, Kim's Art Field Art Museum, Busan, Korea  
*Ahn, Chang Hong and Kim, Jung Wook*, Gallery Skape, Seoul, Korea  
*Realism Interpreted as Contemporary Art*,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Dissonant Vision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8 *Spring Passing By*,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07 *Documenta Busan III-Everyday is a History*, Busan Museum of Modern Art, Busan, Korea  
*Korea Contemporary Art 100*, Kora Art Gallery, Busan, Korea  
*How to Read a Painting*, Savina Art Museum, Seoul, Korea  
*Art Toward The Society : Realism in Korea Art 1945-2005*, Bandaijima Art Museum, Fukuoka Asian Art Museum, Miyakonojo, City Museum of Art, Otani Memorial Art Museum, Fuchu Art Museum, Japan

2006 *10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Korea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Seoul, Korea  
*A Face of Our Times*, Gimhae Arts and Sports Center, Yunseul Art Gallery, Gimhae, Korea

2005 *The Special Exhibition, Commemoration of the APEC-Korea Contemporary Art*,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04 *Busan Biennal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Travel to Greece*, Savina Art Museum, Seoul, Korea

2003 *1st Beijing International Art Biennale*, Beijing, China  
*The Presentation of Hybrid Painting*,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Korea  
*Artist's Artistic Love Story for Alcohol*, Savina Art Museum, Seoul, Korea  
*Psycho Drama*,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02 *Korea Bloom(發)*, Seoul Auction, Seoul, Korea  
*Gwangju Biennale Project 3 - Stay of Execution*, May 18th Liberty Park, Gwangju, Korea  
*Korea and China 2002-New Appearances*,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2001 *Korean Art 2001: The Reinstatement of Painting*,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Family*,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1980's Realism and the Age*, Gana Art Center, Seoul, Korea

2000 *Gwangju Biennale - Man and Sex*,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1998 *Window - the Inside and the Outside*, Gwangju Municipal Art Hall, Gwangju, Korea  
*Rediscovery of Busan Fine Arts*,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1997 *Contemporary Art 1997*,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s, Seoul, Korea  
*The Humor to Overflow at the Art Museum*,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The Gwang Ju Biennale Special Exhibition*, Gwangju Municipal Museum of Art, Gwangju, Korea

1996 *The View of a Night*, Savina Museum of Art, Seoul, Korea  
*Freedom 50 years History Exhibition*, Hangaram Museum of Art, Seoul, Korea

1995 *Reminiscing the Snow of Ten Years*, Hangaram Museum of Art, Seoul, Korea  
*Minjung Art 15 Years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Road to Self-Respect*,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1993 *Flower of the 93 Korean Contemporary Art*, Art Space Min, Seoul, Korea

1992 *Aspect of Korean Art in The 1990's*, Woori Art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Today's Life, Today's Art-Subconscious and Desire Show*,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The Age of Tension and Confrontation-Exhibition for Open Hanwon Art Museum*, Hanwon Art Museum, Seoul, Korea

1987 *Existing Sense*, Sign Gallery, Busan, Korea

1986 *Reality and Speech*, Art Space Min, Seoul, Korea

1985 *The 4th Anniversary Exhibition of Seoul Art Gallery*, Seoul Art Gallery, Seoul, Korea

1984 *2nd Spirit of the Era*, Busan, Masan, Seoul, Korea  
*Reality and Speech*, Arab Art Museum, Seoul, Korea  
*83 Painters at Issue Exhibition*, Seoul Museum, Seoul, Korea

1983 *Reality and Speech*,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1st Spirit of the Era*, The 3rd Gallery, Seoul, Korea

1982 *11 Human*,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View of the 80 years of Korean Contemporary Art*, Arko Art Center, Seoul, Korea  
*Situation and Awareness*, Gallery Hyundai, Busan, Korea

1981 *Busan Youth Biennale*, Kongkan Gallery, Busan, Korea

1980 *21 Contemporary Artists' Invitation Exhibition*, Kukje Gallery, Busan, Korea

1979 *Korean Art Young Artists Association Exhibition*, Young Artists Art Center, Seoul, Chuncheon, Daegu, Jeju, Korea

1978 *Opening Ceremony Commemoration Exhibition*, Kukje Gallery, Busan, Korea

1977 *1st- 2nd Turbulence*, Busan, Korea

1976 *Joint Exhibition by Ahn, Chang Hong and Jung Bok Soo*, Gallery Hyundai, Busan, Korea

#### AWARDS

2013 25th Lee Jungseop Art Prize, Seoul, Korea

2009 10th Lee Insung Art Prize, Daegu, Korea

2001 1st Buil Art Grand Prize, Busanilbo, Busan, Korea

2000 10th Bongseng Cultural Award, Bongseng Cultral Foundation, Busan, Korea

1989 Juror Special Prize, Cagnes International Painting Festival, Cagnes-sur-mer, France

#### PUBLIC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Gwacheon, Korea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Busan Museum of Modern Art, Busan, Korea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Savina Museum of Art, Seoul, Korea

93Museum, Heyri, Korea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이 책자는 아래 전시에 맞춰 출판되었습니다.  
This catalog was published alongside the exhibition below.

# AHN, CHANG HONG

## 안창홍 | 화가의 심장

2 May - 30 June, 2019

Arario Gallery Seoul | Samcheong

기획	아라리오갤러리
총괄디렉터	주연화
디렉터	강소정
전시담당	정서윤
전시보조	엘렌 저스터스

글	안창홍, 최태만
디자인	박성휘
편집	정서윤
번역	신혜린
사진	권오열 (포토510)

도판 © 2019	Artist and ARARIO GALLERY
도록 © 2019	아라리오갤러리
인쇄·제본	경일인쇄
초판	500부
초판인쇄일	2019년 5월 2일

Organized by	ARARIO GALLERY
Executive Director	Dr. Yeonhwa Joo
Director	Sojung Kang
Exhibition Organizer	Seoyoon Jung
Exhibition Assistant	Ellen Justus

Text	Ahn, Chang Hong, Choi Tae Man
Design	Seonghwi Park
Edit	Seoyoon Jung
Translation	Haerin Shin
Photography	Oyeol Kwon (Photo510)

Images © 2019	Artist and ARARIO GALLERY
Catalog © 2019	ARARIO GALLERY
Print	Gyungil Print
Limited Edition	500 copies
First Published	May 2, 2019

본 도록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작가와 아라리오갤러리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by any manner,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ISBN\_979-11-86399-37-8 03660  
Published by ARARIO GALLERY, KOREA